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4. 18. ~ 04. 24.

전남농업정보

81

VOL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동향 (관측정보)

· 마늘 · 양파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한우고기 전남서 생산·도축 가공해 홍콩 수출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남부지역에서 여주 재배 방법별 적정 정식기
- 래빗아이 블루베리 브라이트웰 품종 유목의 착과량 조절방법

정책동향

· 배추·무 정부비축 물량 확대 공급 추진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정보가 다양한 전남농업정보지 구독 희망자 모집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비슷하거나 많겠음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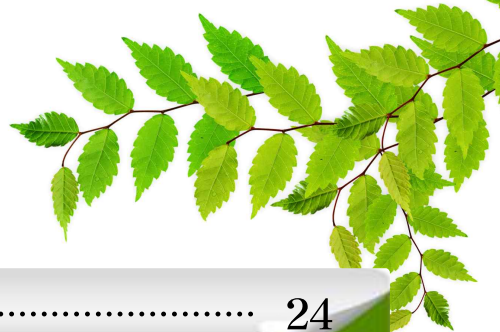
- ▶ 마늘·양파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 ▶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적기방제 당부
-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4월 예보)
- ▶ 엽근채소류 가격동향 및 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5

- ▶ 전라남도, 전남쌀 안전성 강화해 고품질 브랜드화
- ▶ 나주시,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을”
- ▶ 광양시, 농산물판매 연합마케팅 활로 찾는다
- ▶ 곡성군, 농업환경 종합검정 추진 ‘박차’
- ▶ 고흥군, 참다래 인공수분 꽃가루은행 운영
- ▶ 보성군, 녹차미인보성쌀 명품단지 육성 시범사업
- ▶ 강진군, 철저한 벼씨소독으로 고품질 쌀 생산
- ▶ 무안군, 양파 수급 안정 사전 대책회의 개최키로
- ▶ 영광군, 국산동부(옥당동부) 재배사업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4

- ▶ 한우고기 전남서 생산·도축·가공해 홍콩 수출
- ▶ “인삼 수출 2020년까지 3억 달러 달성”
- ▶ 정부, 버섯·차 등 특용작물 수출 활성화 박차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9

- ▶ 남부지역에서 여주 재배방법별 적정 정식기
- ▶ 래빗아이 블루베리 브라이트웰 품종 유목의 착과량 조절 방법
- ▶ 양질 조사료 위주 급여를 위한 한우 거세우 TMR 사료배합비 활용
- ▶ 고추 어릴 때 꽃 따주면 수확량 2배 높아져
- ▶ 벼줄무늬잎마름병 조기 예찰로 방제까지 가능해요
- ▶ 참깨, 파종 시기와 서로 간 거리를 지켜주세요
- ▶ 토양 물리성 관리가 작물 생육·고품질 수확 좌우
- ▶ 국산 땅콩산업 활력 수량·기능성 높인 품종 개발이 한몫

❁ 정책 동향 40

- ▶ 배추·무 정부비축 물량 확대 공급 추진
- ▶ 전남도,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에 500억 지원
- ▶ 전남도, 유기농 실천 농업인에 70억원 1% 저리 융자

▶ 사우디 식품시장 공략 키워드 : 웰빙과 안정성

▶ 일본서 제품 영양성분 표기 마케팅 인기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4. 18(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숏커버링세로 상승한 후 혼조세를 보였으며 전일과 같은 수준에서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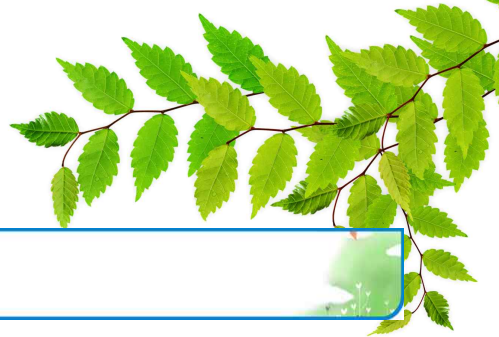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옥수수 수출 수요 증가로 가격지지를 받아 상승 마감하였음.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시장을 지원하는 펀드멘탈과 기술적 요인 등으로 상승 마감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정보가 다양”한 전남농업정보지 구독 희망자 모집

▶ 광주전남 도심서 직거래 농부장터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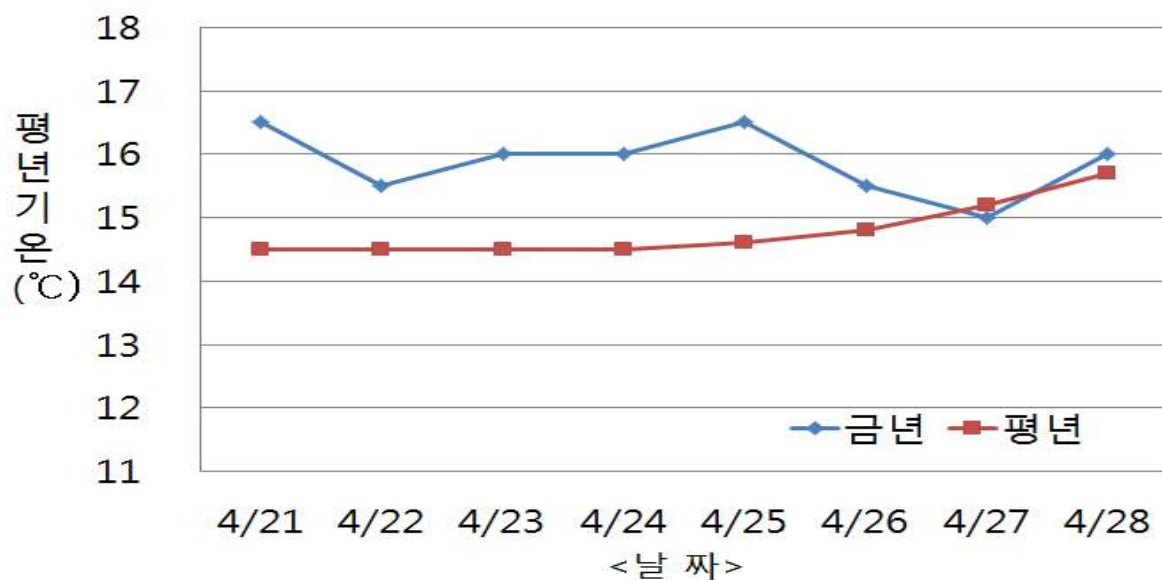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5.9	14.8	1.1	21.9	21.3	0.6	9.9	9.1	0.8	2.5
4. 21.(목)	16.5	14.5	2.0	21.0	20.9	0.1	12.0	8.9	3.1	3.1
4. 22.(금)	15.5	14.5	1.0	22.0	20.9	1.1	9.0	8.9	0.1	2.7
4. 23.(토)	16.0	14.5	1.5	22.0	21.0	1.0	10.0	8.9	1.1	2.6
4. 24.(일)	16.0	14.5	1.5	22.0	21.0	1.0	10.0	8.8	1.2	2.5
4. 25.(월)	16.5	14.6	1.9	23.0	21.3	1.7	10.0	8.7	1.3	1.8
4. 26.(화)	15.5	14.8	0.7	22.0	21.5	0.5	9.0	8.9	0.1	1.9
4. 27.(수)	15.0	15.2	-0.2	21.0	21.8	-0.8	9.0	9.4	-0.4	2.7
4. 28.(목)	16.0	15.7	0.3	22.0	22.1	-0.1	10.0	10.0	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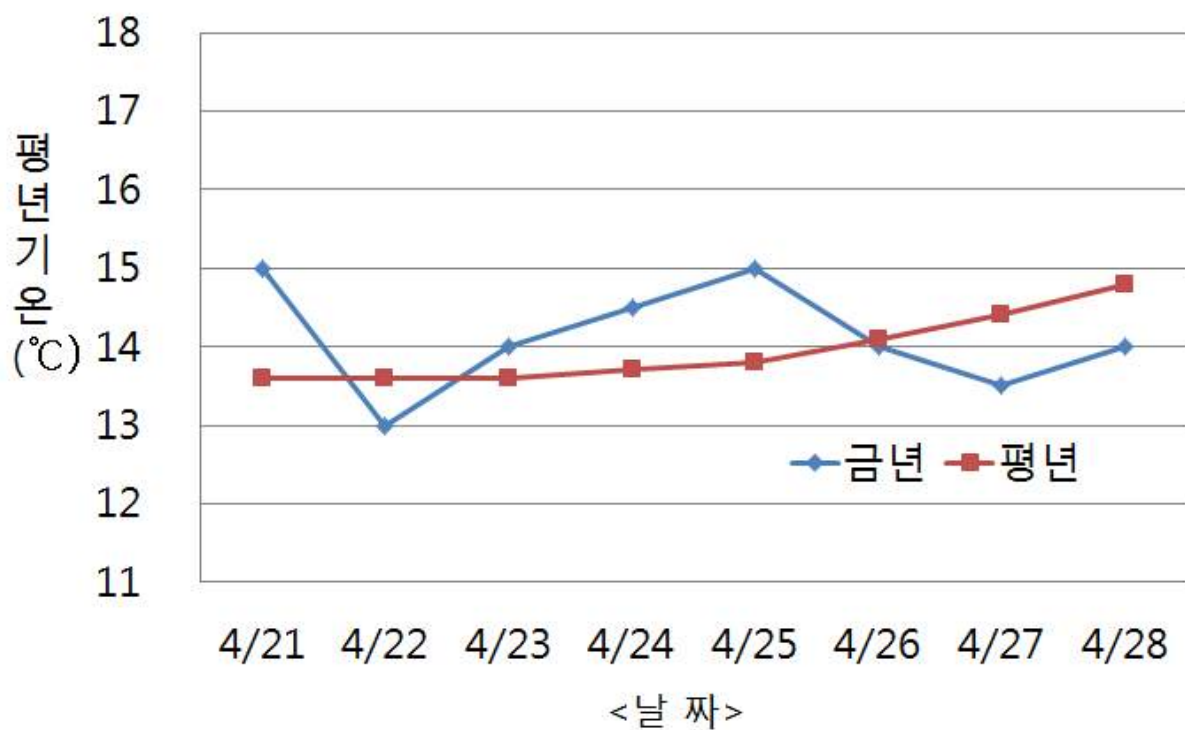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4.1	14.0	0.2	18.5	19.4	-0.9	9.8	9.7	0.1	2.2
4. 21.(목)	15.0	13.6	1.4	18.0	18.9	-0.9	12.0	9.4	2.6	2.7
4. 22.(금)	13.0	13.6	-0.6	17.0	19.0	-2.0	9.0	9.4	-0.4	2.3
4. 23.(토)	14.0	13.6	0.4	18.0	19.1	-1.1	10.0	9.5	0.5	2.2
4. 24.(일)	14.5	13.7	0.8	19.0	19.1	-0.1	10.0	9.4	0.6	2.2
4. 25.(월)	15.0	13.8	1.2	20.0	19.3	0.7	10.0	9.4	0.6	1.7
4. 26.(화)	14.0	14.1	-0.1	19.0	19.5	-0.5	9.0	9.7	-0.7	1.7
4. 27.(수)	13.5	14.4	-0.9	18.0	19.8	-1.8	9.0	10.1	-1.1	2.4
4. 28.(목)	14.0	14.8	-0.8	19.0	20.1	-1.1	9.0	10.5	-1.5	2.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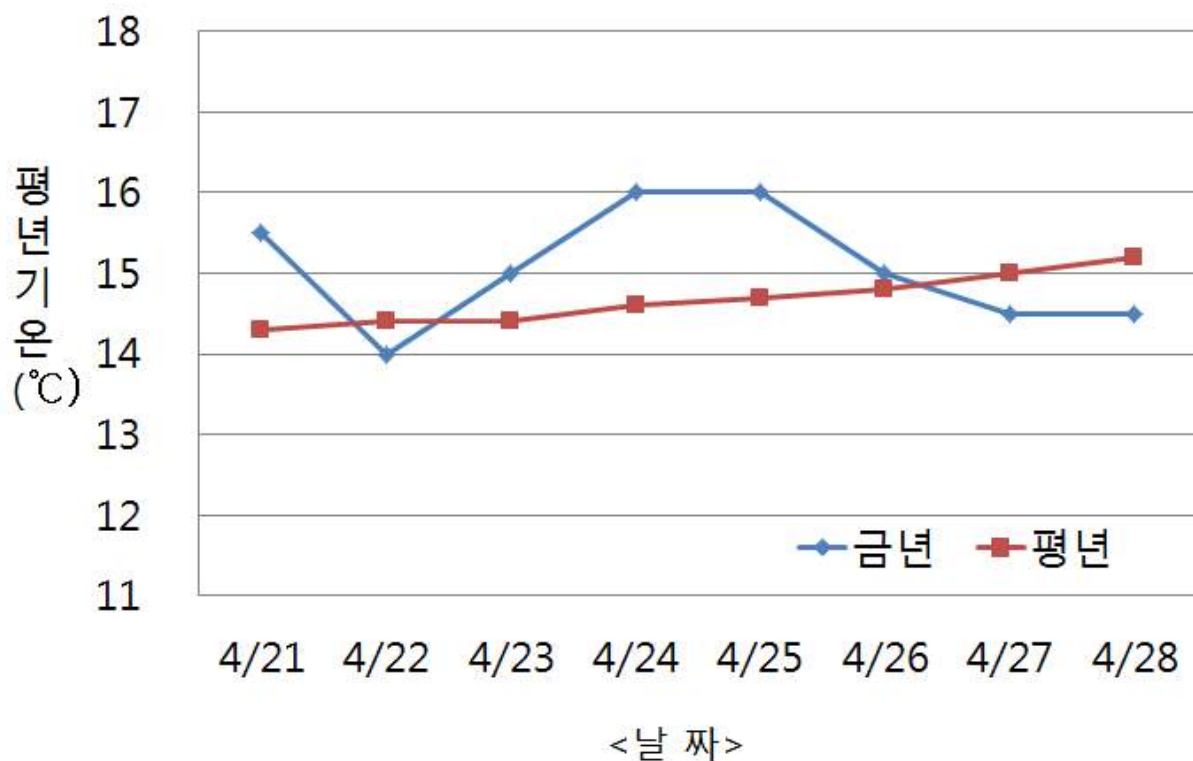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5.1	14.7	0.4	18.8	18.8	-0.1	11.4	11.1	0.2	3.6
4. 21.(목)	15.5	14.3	1.2	18.0	18.4	-0.4	13.0	10.9	2.1	4.5
4. 22.(금)	14.0	14.4	-0.4	18.0	18.5	-0.5	10.0	10.9	-0.9	4.2
4. 23.(토)	15.0	14.4	0.6	19.0	18.6	0.4	11.0	10.9	0.1	3.3
4. 24.(일)	16.0	14.6	1.4	20.0	18.8	1.2	12.0	11.0	1.0	2.7
4. 25.(월)	16.0	14.7	1.3	20.0	19.0	1.0	12.0	11.0	1.0	2.6
4. 26.(화)	15.0	14.8	0.2	19.0	19.0	0.0	11.0	11.1	-0.1	2.8
4. 27.(수)	14.5	15.0	-0.5	18.0	19.1	-1.1	11.0	11.5	-0.5	3.7
4. 28.(목)	14.5	15.2	-0.7	18.0	19.2	-1.2	11.0	11.8	-0.8	4.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마늘·양파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 생육상황 및 문제점 (신안군)

○ 평년·전년 대비 현재 생육상황 및 문제점 등

- 마늘은 파종 후 10~12월 따듯한 기후로 전년·평년보다 생육이 좋으며 일부 포장 2차 생장 발생
- 양파 전반적으로 생육이 좋으며, 일부 포장 노균병 발생 및 기계 정식 양파 생육이 너무 좋아 추대·분구 발생 우려됨

○ 고온, 생육상황에 따른 포전거래 동향 등

- 마늘·양파 생육 전년·평년보다 좋으나, 구비대기 고온 등 기상여건에 따라 수량 차이가 많음
- 마늘 생육이 좋은 포장 120만원/100평에 일부 거래 되었으며, 중만생종 양파는 포전거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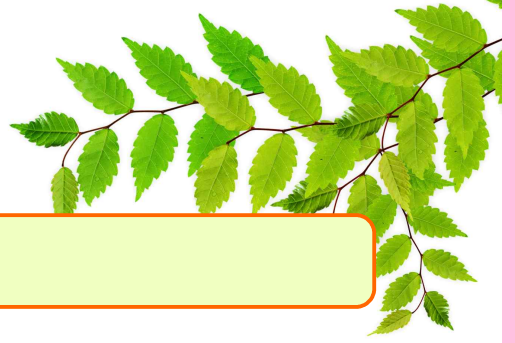
□ 병해충 발생현황 (고흥군)

○ 마늘

- 황화현상 있음, 대서마늘에선 녹병 발생농가 많음, 잦은 강우와 해충에 의한 무름병 발생

○ 양파

- 겨울 따듯한 기후로 조기파종 및 웃자람 심한 농가 분구 발생률 높고, 노균병 발생이 진행 중임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적기방제 당부

- 개화 후 20일경, 과실크기 10mm일 때 적기 방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매실에 큰 피해를 주는 복숭아씨살이좀벌의 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방제적기는 매실이 개화한 후 20일경으로 4월 중순경이다. 과실크기가 직경이 10mm내외이며, 지역·품종·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약제 살포는 최고 기온이 25℃ 이상으로 맑고 화창한 날이 좋다. 방제적기 이후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하며 발생밀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피해를 받아 떨어진 과실을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야 한다.
- 피해 증상은 초기에 열매에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으나 수확 직전에 표면 일부가 갈색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과실 씨방 속에서 애벌레로 월동하여 이듬해 꽃필 무렵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어 어린 열매 속에 1개씩 산란한다. 성충 1마리는 100여개의 알을 낳는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박혜량 과장은 지난해 겨울철이 따뜻하여 매실의 개화시기가 2~4일 정도 빨라져 방제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농가에서는 기상청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 적기에 복숭아씨살이좀벌을 방제해야 한다고 했다.
- 한편, 전남지역은 매실 주산지이며 재배면적이 9,909농가 4,145ha로 전국의 46%를 차지한다. 시·군에서는 광양 1,736, 순천 1,109, 곡성 610ha 등 주로 동부권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4월 예보)

☐ 벼 종자전염성 병해충

-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여 키다리병·도열병·깨씨무늬병·벼잎선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독 후 약제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처리하여 버림

☐ 양파 노균병, 마늘·양파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

- 양파노균병과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상습지에서는 예방적으로 적용약제로 방제

☐ 과수 갈색날개매미충과 검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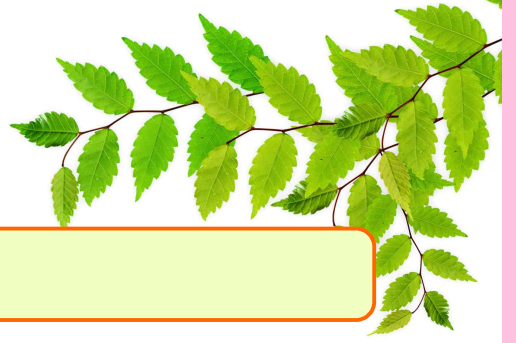
- 갈색날개매미충은 산란피해를 받은 가지를 제거하고 4월말부터 약충이 깨어 나오면 적용약제로 방제하며, 사과·배의 검은별무늬병과 붉은별무늬병은 발생 전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의 예측정보에 따라 적용약제로 방제

☐ 검역병해충 : 사과·배 화상병

- 배화상병 미발생 지역은 개화(배) 혹은 신초(사과) 발아 직전에 동제 화합물을 처리하고 발생지역은 만개 5일 후부터 2회 적용약제 살포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엽근채소류 가격동향 및 전망

□ 가격전망

○ 4월 배추·무 가격은 저장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

- 배추 가격은 월동배추 저장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11,000원/10kg 내외 전망
- 무 가격은 월동무 산지 및 저장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15,000원/18kg 내외 전망
- 감자(수미) 가격은 저장 고랭지감자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37,000원/20kg 내외 전망
- 당근 가격은 겨울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22,000~27,000원/20kg 전망
- 양배추 가격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8,000~9,000원/8kg 전망

□ 차기작형

- 배추·무 봄작형 재배(의향)면적은 월동작형 출하기 가격이 높아 증가 전망
- 시설봄배추·무 재배면적은 월동작형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41~82% 증가하나, 시설 봄당근·양배추는 대파·감자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면서 5~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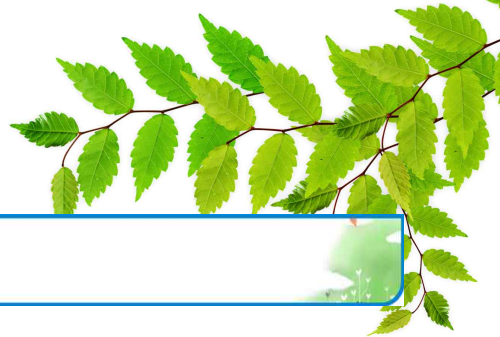
- 엽근채류 시설작형 초기생육 양호한 수준
- 노지 봄배추·무·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38% 증가하나,
노지 봄당근은 4% 감소

○ 엽근채류 봄작형 재배(의향)면적 작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배추	무	감자	당근	양배추
시설	작년대비	81.9	40.7	5.1	-4.6	-7.5
	평년대비	-37.3	9.4	-27.3	11.6	-10.8
노지	작년대비	15.2	37.7	9.6	-3.7	3.9
	평년대비	-29.5	-0.4	-8.3	-3.5	7.6
전체	작년대비	25.1	38.1	9.3	-4.3	1.7
	평년대비	-31.3	0.7	6.3	6.3	4.0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4. 18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18)	1주일전 (04/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0,800	42,060	↓ 11.3	↓ 13.9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6,000	185,033	↑ 10.3	↓ 18.9
	고구마(밤)	10kg	29,200	29,800	26,560	28,200	26,733	↑ 3.5	↑ 9.2
	감자(수미)	20kg	31,400	32,600	32,320	44,750	27,920	↓ 29.8	↑ 12.5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520	1,560	1,196	483	789	↑ 214.7	↑ 92.6
	양배추	10kg	10,300	9,500	7,200	5,825	5,955	↑ 76.8	↑ 73.0
	오이(다다기계통)	10kg	21,667	23,000	35,440	25,722	23,300	↓ 15.8	↓ 7.0
	애호박	8kg	14,200	16,800	28,080	20,350	15,747	↓ 30.2	↓ 9.8
	토마토	10kg	31,000	34,400	39,720	33,800	33,897	↓ 8.3	↓ 8.5
	당근	20kg	27,800	27,000	25,200	23,050	28,360	↑ 20.6	↓ 2.0
	건고추(화건)	60kg	726,000	756,000	780,000	820,000	857,333	↓ 11.5	↓ 15.3
	풋고추	10kg	42,200	44,200	51,600	56,000	45,573	↓ 24.6	↓ 7.4
	마늘(깐마늘)	20kg	169,000	169,000	163,000	107,200	121,693	↑ 57.6	↑ 38.9
	양파	20kg	31,800	31,400	32,440	14,300	12,980	↑ 122.4	↑ 145.0
	대파	1kg	2,430	2,390	2,676	1,570	1,419	↑ 54.8	↑ 71.2
	파프리카	5kg	28,800	24,400	27,360	25,150	28,290	↑ 14.5	↑ 1.8
	멜론	8kg	27,000	28,000	29,160	28,550	42,170	↓ 5.4	↓ 36.0
	방울토마토	5kg	24,800	22,600	30,960	23,800	23,333	↑ 4.2	↑ 6.3
	수박	1개	17,000	16,800	19,080	15,800	15,440	↑ 7.6	↑ 10.1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7,000	37,000	37,000	42,533	51,404	↓ 13.0	↓ 28.0
	배(신고)	15kg	44,000	44,000	44,000	40,800	44,497	↑ 7.8	↓ 1.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18)	1주일전 (04/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32,000	570,867	↓ 0.6	↓ 7.3
	느타리버섯	2kg	13,600	13,400	11,920	13,300	12,387	↑ 2.3	↑ 9.8
	새송이버섯	2kg	8,200	8,400	9,000	8,550	8,637	↓ 4.1	↓ 5.1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18	8,023	8,124	6,296	5,778	↑ 22.6	↑ 33.6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18	1,919	1,843	1,861	1,818	↓ 2.3	- 0.0
	닭고기	1kg	5,293	5,589	5,570	5,267	6,039	↑ 0.5	↓ 12.4
	계란(특란)	30개	5,356	5,174	5,360	5,889	5,857	↓ 9.1	↓ 8.6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74	- 0.0	↑ 7.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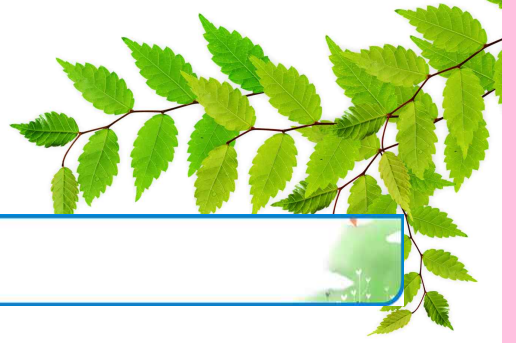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4. 18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17 천원	5,839 천원	4,062 천원	↑ 1.3	↑ 45.7
	거세	7,379 "	7,229 "	5,528 "	↑ 2.1	↑ 33.5
송아지 (6~7월)	암	2,958 "	2,847 "	2,528 "	↑ 3.9	↑ 17.0
	수	3,595 "	3,415 "	2,261 "	↑ 5.3	↑ 59.0
육우(600Kg)		3,658 "	3,660 "	3,562 "	↓ 0.1	↑ 2.7
젖소수송아지(7일령)		288 "	288 "	154 "	-	↑ 87.0
돼지(110kg)		375 "	366 "	396 "	↑ 2.5	↓ 5.3
육계(원/kg)		1,198 원	1,373 원	1,810 원	↓ 12.7	↓ 33.8
계란(원/특란10개)		989 "	917 "	1,362 "	↑ 7.9	↓ 27.4
오리(원/kg)		1,667 "	1,667 "	2,500 "	-	↓ 33.3

※ '14년 경영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전남쌀 안전성 강화해 고품질 브랜드화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전남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에서 추천 의뢰한 15건의 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잔류농약 258개 항목과 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에 제공할 예정이다.
- 지난해에는 시·군에서 추천한 17건의 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황토랑 쌀’ 등 4개의 전남쌀이 선정되는 데 일조했다.
- 최경철 전라남도 약품화학과의장은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찾는 것이 최근의 소비 추세여서 친환경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생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나주시,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을”

-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취지 -

- 나주시는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7일 왕곡면 화정리 정촌마을에서 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 최근 고령화 및 여성화가 심화되는 농촌은 반복되는 과도한 작업으로 신체에 무리를 주어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시켜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간공학적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장비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이화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나주시는 올해 2개소를 지원하며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내 농업인 단체 및 마을에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보급해 왔는데, 이 사업은 일반적인 농업인 대상 지원사업과는 달리 사업목적에 맞는 농업인 단체 및 마을을 선정한 후 해당분야 전문가인 관련학과 교수의 컨설팅을 통해 작목과 작업에 맞는 장비를 수정·보완·보급 등을 하는 사업이다.
- 나주시는 작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해 농가 노동 부담 경감은 물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농산물판매 연합마케팅 활로 찾는다

- 광양매실 판매 확대 위해 농협중앙회 청과사업단과 MOU 체결 추진 -

- 광양시는 광양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농협연합 사업단과 수도권 연합마케팅으로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4월 5일부터 이틀간 농협연합 사업단과 합동으로 수도권 농산물 유통시장을 순회 방문해 빛그린 광양매실을 비롯해 애호박·건나물류 등 광양농산물의 판촉·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 특히 이번 연합마케팅을 통해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광양매실이 입점되고, 하이트 진로·보해·롯데 주류 등 주류업체에 가공용 매실이 순조롭게 납품되면 향후 광양 매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애호박·부추 등 광양농산물을 거래하고 있는 대전공판장·인천원예농협 구월공판장·삼산공판장 등 기존 거래처 방문을 통해 광양농산물 처리물량 확대와 지속적인 거래를 추진키로 협의했다.
- 김병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앞으로 매실 등 광양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와도 MOU 체결, 바이어 초청 간담회,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소비자 체험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농업환경 종합검정 추진 ‘박차’

- 곡성군농업기술센터(김인수 소장)는 관행적 농업의 패러다임을 첨단기술과 과학영농에 중점을 두고 농업경쟁력을 높여가고자 농업환경 종합검정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 이를 위해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을 설치하고 매년 토양화학성, 물리성, 유해중금속, 농업용수, 가축분뇨액비 및 발아율 등의 시험·분석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 특히 토양화학성 검정결과는 처방서 형태로 농가에 제공된다. 농가에 제공하는 처방서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양분의 많고 적은 정도에 따라 밑거름과 웃거름, 토양개량제 사용량도 별도로 알려주는 농사짓는 땅에 대한 종합검진 결과다.
- 토양 검정결과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에 입력해 검정을 의뢰한 농업인들도 직접 언제든지 경작하는 토양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맞춤형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농업환경관련 검정을 받기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에 비치된 시료채취봉투를 이용해 작물재배지에 비료(퇴비 포함)를 살포하기 전 해당필지의 3~5곳에서 토양단면 시료를 채취(1~20cm 깊이)해 시험·분석 의뢰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학적 분석을 통한 농경지 양분관리는 땅의 양분불균형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영농비용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우리군도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과 가축분뇨액비 살포면적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참다래 인공수분 꽃가루은행 운영

-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 참다래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꽃가루 생산·보급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 참다래는 바람이나 벌, 곤충 등에 의해 자연수정이 잘되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가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있다.
- 군은 지난해 농가에서 채취한 98ha분에 해당하는 9.8kg의 화분을 냉동보관 중이며, 농가 요구 시 사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참다래 꽃이 개화하는 5월부터는 농가에서 가져온 꽃에서 화분을 직접 채취해 인공수분에 활용하고 냉동 저장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한다.
- 과수 인공수분은 개화기 고온·저온·강우 등 이상기상과 벌·나비 등 방화곤충 활동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정불량을 예방해 착과율 및 상품성 향상과 기형과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양질의 꽃가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보다 개화 직전의 꽃봉오리 상태로 채취해 작업해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 한편, 고흥군 참다래 재배 면적은 161ha로 전국 최대 주산지에 속하며, 연 42억여원의 소득을 거두는 효자 품목이다.

* 출처 : 고흥군

■ 녹차미인보성쌀 명품단지 육성 시범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업인 교육 실시 -

- 15일 보성군 농협쌀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녹차미인보성쌀 명품단지 육성 시범사업 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을 실시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란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 교육은 한국작물연구소 이철호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농산물 우수관리기준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이해와 관리 기준 요령, 인증제도 및 인증 실천사항에 대해 이뤄졌으며, 시범사업 설명 및 추진 요령과 고품질 쌀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진주)에 따르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1개소 125ha에 143백만원을 투입하여 녹차미인보성쌀 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쌀 생산단지 우수관리 체계 구축으로 GAP인증을 통한 보성쌀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 한편 녹차미인보성쌀은 2008년부터 전국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 8년 연속 선정, 2015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지역을 빛낸 쌀’ 수상, 2015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쌀이다.

* 출처 : 보성군



■ 강진군, 철저한 벼씨소독으로 고품질 쌀 생산

- 농업기술센터, 이달 30일까지 벼씨소독 방법 등 현장 지도 실시 -

- 전남 강진군은 기후 온난화로 매년 발생이 증가하는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벼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종자로부터 전염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인 키다리병을 비롯하여 깨씨무늬병·세균벼알마름병·벼잎선충·도열병은 발생 전에 종자소독 등의 예방이 최선이며 지금이 적기 소독 시기라고 알려져 있다.
- 이에 따라 군은 전문지도 연구사로 구성된 중점 지도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20일간 벼씨소독 방법을 비롯해 파종, 못자리 설치 등 현장 지도에 나선다.
- 벼 종자소독방법은 정부 보급종 중 소독 처리되어 보급된 종자는 살균제만 처리되어 있어 살충제를 추가하여 소독하면 되지만 미 소독되거나 자가 채종 종자는 60℃의 물에 10분정도 담가 소독하는 온탕소독 방법이나 벼씨발아기를 활용하여 30℃의 물을 종자량의 2배 정도로 맞춰 살균제와 살충제를 섞고 48시간 소독하는 약제소독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 아울러 종자소독에 앞서 소금물가리기(염수선)나 종자 선별 탈망기를 이용하여 건전한 종자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전육묘 육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다음달 25일부터 6월 5일이 강진군의 이앙적기임을 감안해 종자소독은 이달 20일부터 30일, 못자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 안으로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강진군

■ 무안군, 양파 수급 안정 사전 대책회의 개최키로

- 양파 가격 오름세 주춤, 조생 양파 가격 하락 움직임 -

- 2016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이 전년 대비 22% 내외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양파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양파수급 관측자료 및 가락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양파 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1월 1,530원, 2월 1,450원, 3월 상순 1,505원이었으나 3월 하순 들어 1,390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 최근 양파 가격은 전년과 평년 대비 약 2배가량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했었다.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서민 물가 상승의 주범이 양파(채소)라는 인식아래 양파 가격 ‘폭등·급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 실제 생산자(농민) 입장에서 보면 양파 재배농가 총 수익은 1994년 10a당 2,703천원에서 2015년 3,521천원으로 130% 증가된 반면, 생산비는 1994년 697천원에서 2016년 2,157천원으로 309% 증가해 지금껏 생산비 증가분이 양파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최근 양파 가격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다. 고흥산 및 제주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어 무안산 양파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산 조생양파는 3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고흥산과 제주산 양파와 중만생종 양파 출하를 이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일찍 출하되는 양파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무안군 관계자는 “양파 수급, 가격안정은 우리군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과제 중 하나”라며 “다음주경 무안군 양파 품목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생양파 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무안군



■ 국산동부(옥당동부) 재배사업 신청하세요

- 단지 2ha 이상, 단지 내 개인 0.5ha 이하 신청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영광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명품화를 위해 올해 옥당동부 재배단지 250ha를 추진할 계획이며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읍면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 영광모싯잎송편의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가 공동 육종한 “옥당동부”는 2016년 2월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되었다.
- 영광군은 2015년에 50ha의 재배단지를 추진하여 전량 관내 모싯잎송편 가공업체에 공급하였고 올해 250ha로 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375톤의 영광산 동부를 생산하여 영광 모싯잎송편 명품화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단지에서 성실히 생산한 질 좋은 동부를 9~11월에 정선하여 12월경에 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이다. 수매 잠정가격은 kg당 6,500~7,300원 내외로 등급별 차등을 두어 1등급 비율을 높이도록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는 7월에 파종하여 9월말에 수확하는 작물로 잡초, 병해충 방제 및 수확작업에서 콩보다 재배하기가 까다롭다며, 특히 가공하여 소비자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해야 하므로 병든 동부·미등숙 동부, 이물질을 포함한 동부 등 가공에 적합하지 않은 동부는 수매하지 않으니 신청 시 본인의 영농규모와 영농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한우고기 전남서 생산·도축·가공해 홍콩 수출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홍콩 정부로부터 작업장 등록-

- 전라남도는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정찬주)이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에서 생산된 한우를 도축·가공해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한 작업장으로 홍콩 정부의 등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 그동안 전남산 한우는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후 타 지역에서 가공해 홍콩으로 수출됐으나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출 작업장으로 추가 등록되면서 전남에서 가공까지 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 녹색한우는 전남의 광역브랜드다. 나주시 등 12개 시·군 8개 축협과 1천 500여 농가가 참여해 8만 마리를 기르고 있다. 앞으로 전용 사양 프로그램에 의해 통일된 사료를 먹여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친환경축산물과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한우고기 위주로 수출할 예정이다.
-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관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첫 수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홍콩 수출용 한우고기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대규모 공장이 없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전남산 한우고기가 홍콩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빠르게 시장을 확보하도록 적극 협력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해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토록 차단방역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인삼 수출 2020년까지 3억 달러 달성”

- 정부,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및 수출 다변화 -

- 정부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인삼중주국으로써의 위상 회복을 위해 국내 인삼산업 경쟁력 향상과 유망시장 수출 다변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인삼 수출 3억 달러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이하 인삼발전대책)은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인삼 소비감소 및 재고증가 등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인삼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인삼발전대책을 일부 보완 및 신규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
- 주요 대책내용으로는 △민간역량 강화 △인삼 R&D의 산업화 연계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기반 조성 △수출 확대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20년 인삼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 신규로 고려인삼 수출 교섭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용 원료삼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수입등록기준·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하고, 해외관 광객을 대상으로 ‘고려인삼 홍보·판매관’ 건립도 추진한다.
- 민간 주도의 인삼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삼의무자조금이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한편, 정부가 고려인삼의 날 제정·전국인삼한마당축제개최 등을 추진해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인삼산업 발전을 유도한다.

- 인삼 R&D를 산업과 연계 및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삼 R&D 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생산·수출 현장의 맞춤형 R&D 추진에 나선다. 특히 인삼 효능과 기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려인삼 승열작용 및 안전성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약전 등록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 고품질 인삼의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선 인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과 ICT 활용 인삼 스마트팜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청정 인삼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또한 소비자 신뢰 및 인삼종주국으로써의 위상 회복을 위해 인삼의 연근과 품질,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경작신고, 의무자조금 미참여자는 인삼계열 화사업·수출물류비 등 각종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박정훈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인삼발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검사 및 표시제도 최소화 등의 개선을 위해 인삼산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정부, 버섯·차 등 특용작물 수출 활성화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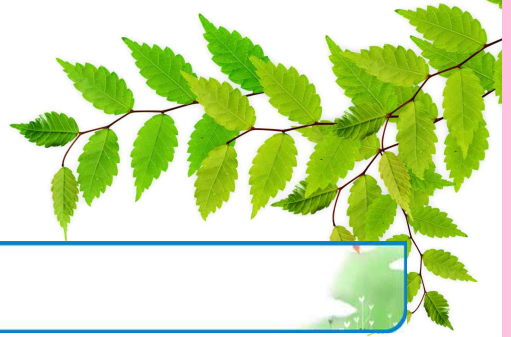
- '2020년까지 버섯 1억 달러, 차 1,000만 달러 수출 목표 -

- 정부가 특용작물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해 2020년까지 1억 달러 상당의 버섯과 1,000만 달러 규모의 차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TPP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고, 웰빙 라이프를 선호하는 인구 증가로 버섯·녹차 등 몸에 좋은 특용작물 소비자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특용작물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품목별로 △소비·유통 및 수출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기반 구축 △협업 및 민간역량강화에 투자해 2014년 1조 8,000억원 규모의 특용작물 생산액을 202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특히 버섯과 녹차는 우리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수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2020년까지 수출액을 각각 1억 달러와 1,000만 달러로 늘려 산업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버섯은 동충하초·노루궁뎅이와 같이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5개의 버섯을 선정, 스타버섯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발판을 다지고 분산된 수출조직을 통합 조직으로 발전시켜 품질 향상과 판촉활동 강화, 수출협상력 제고 등에 앞장선다.

- 오는 6월에 완공되는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광양·함안 2개소) 등을 활용해 팥이버섯·새송이·표고버섯(사료, 난방용 등)의 배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팜 구축에 앞장서 기계화 시설재배가 가능한 톱밥표고 생산량을 현재 22에서 50%까지 늘린다. 버섯 원군의 체계적 관리와 국내 우수 종균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원균관리센터(1개소)를 건립하고, 버섯산업기사제를 도입해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한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 수출 목표를 1,000만 달러로 설정한 차는 녹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가장 먼저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수출전문조직으로 육성한다. 차 주산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문유통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 차 역시 재배단지나 가공공장에 ICT기술을 적용해 생산 기반을 강화에 나서며, 고품질 차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표준재배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용작물 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품목별 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점검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남부지역에서 여주 재배 방법별 적정 정식기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시설재배 적정 정식기 : 3월 20일~4월 5일

- 4월 20일(9,629kg/10a) 대비 과실 총 수량 9%증수(10,539kg)

○ 노지재배 적정 정식기 : 4월 20일~5월 5일(서리의 위험시기 회피)

- 5월 20일(4,163kg/10a) 대비 과실 총 수량 15~17%증수(4,872kg)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재배 안전성 확보 : 16.7~18.0℃의 평균기온 유지

○ 조기수확 및 수확기간 연장 : 시설재배 3~8일, 노지재배 7~11일

○ 소득증가액 : 1,283천원(시설)~1,011천원(노지)/1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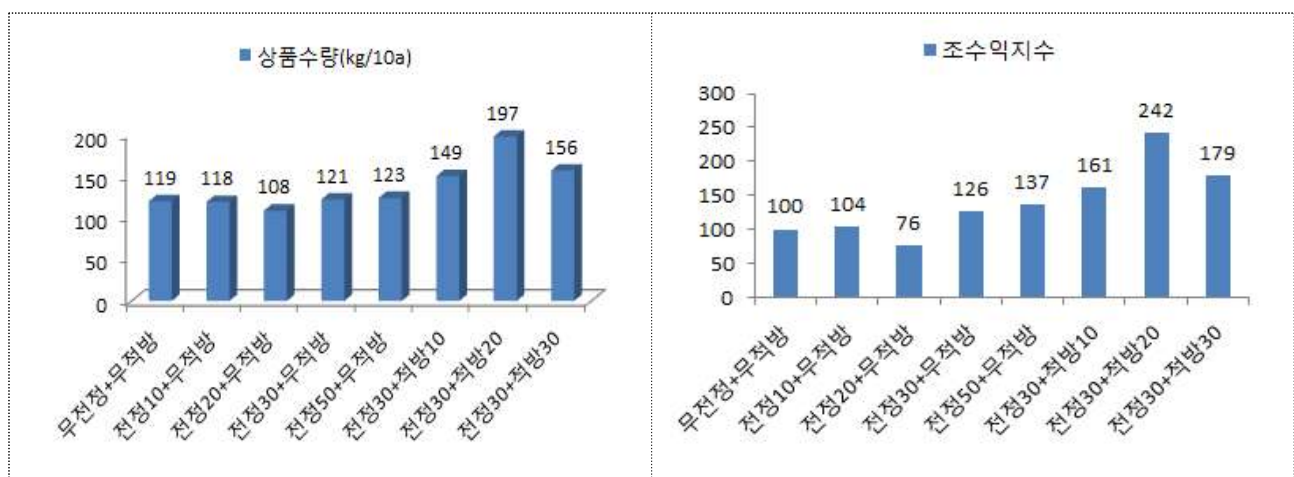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김성준

■ 래빗아이 블루베리 브라이트웰 품종 유목의 착과량 조절 방법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브라이트웰 유목의 효율적인 착과량 조절방법

- 동계전정시 가지의 30%, 개화전후 화방 20% 제거하고, 지면부 30cm 높이의 세력이 약한 가지 우선 솎음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상품과율 68, 상품수량 65% (77kg/10a)증가
- 수확 노력 31%(무처리 16일 대비 862천원/10a)절감
- 조수익 증가 : 1,220천원/10a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혜성



■ 양질 조사료 위주 급여를 위한 한우 거세우 TMR 사료배합비 활용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거세 한우 비육 시 조사료 위주 급여로 사료비 절감

- IRG, 옥수수사일리지 등의 양질 조사료 위주로 배합(조사료 50 및 70%, 건물 기준, 사육기간 평균)

	옥성기 (8.5~12개월령)		비육전기 (13~18개월령)		비육중기 (19~24개월령)		비육후기 (25~32개월령)	
	시험1구	시험2구	시험1구	시험2구	시험1구	시험2구	시험1구	시험2구
알팔파	3.27	-	-	-	-	-	-	-
변질	-	-	16.7	-	14.0	-	7.8	6.8
옥수수사일리지	21.78	32.32	22.3	24.2	10.0	21.7	-	-
IRG(건)	36.63	47.99	25.0	56.4	16.0	33.9	19.5	33.6
보리	5.25	3.92	6.1	4.0	6.0	6.0	5.8	3.4
단백피	4.16	1.96	3.3	1.2	6.5	3.8	11.2	10.1
당밀(사탕수수)	5.25	2.94	2.4	2.4	3.3	2.2	3.4	3.0
소맥피(밀기울)	4.16	1.96	3.3	1.2	4.4	1.8	4.8	3.2
야자박	1.56	0.98	1.7	0.6	2.2	0.9	1.5	1.0
옥수수후레이크	3.07	-	11.2	9.2	21.7	15.8	26.7	25.4
면실	-	-	-	-	3.3	4.0	3.9	2.7
사과박	0.99	0.69	0.8	0.3	1.0	0.4	0.7	0.5
알거(생마경)	4.95	2.94	5.0	8.0	5.0	5.0	5.8	2.7
팜박	1.39	0.49	1.0	0.4	1.5	0.6	1.0	0.7
물	6.44	2.94	2.2	2.0	3.3	2.0	5.8	6.0
비타민광물질첨가제	0.3	0.2	0.3	0.3	0.3	0.3	0.2	0.2
석회석	0.59	0.59	0.7	0.6	0.7	0.6	0.6	0.6
소금	0.2	0.1	0.1	0.04	0.1	0.1	0.1	0.1



조사료 위주 급여 배합비

육색(위 : 대조구, 아래 : 시험구)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사료비 절감 효과(단위 : 원/월/두)

- 대조구(관행)보다 시험1구 14,304원(12.2%), 시험2구 20,409원(17.3%) 절감

○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향상 : (관행) 71% → (시험1구) 100%

○ 거세 한우 비육우 소득 비교

- 관행사육 대비 시험1구 236,453원(18.3%), 시험2구 287,993원(22.3%) 수익 발생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구민정

■ 고추 어릴 때 꽃 따주면 수확량 2배 높아져

- 일시 다수확 가능으로 경영비 절감·소득 향상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고추 비가림 재배 시 어릴 때 꽃을 따주면 착과율이 높아져 수확량이 2배 늘어난다고 전했다.
- 고추 꽃 따주기는(적화) 4차분지 까지 하면 되는데, 1차분지의 꽃은 아주심기 전에 따면 편하고 2~4차분지의 꽃은 아주심기 후 3~4주 후 4차분지에 꽃봉오리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따면 된다.
- 시험재배는 5차분지 적화까지 실시했는데, 홍고추의 경우 4차분지 까지 했을 때 수확량과 총 수량이 가장 많았다.
-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열매가 달리는 비율이 높아져 수확량이 1.8배 많아지고 고추 열매의 착색도 좋아 고춧가루 품질도 좋아진다.
- 또, 1~4차분지의 꽃을 따주면 5~10차분지의 꽃에 열매가 집중적으로 열려 한꺼번에 수확할 수 있다.
- 보통 고추 수확은 4~5차례에 걸쳐 실시하므로 꽃을 따주는 노동력과 한 번에 수확하는 노동력을 포함해도, 일시 수확하게 되면 수확 노동력을 1/3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 더불어, 고추 재배 시 유기 재배를 하면 품질은 좋아지며 병 발생이 줄어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 유기농자재 이용 시 유황 (300~500배) + 오일제제 (100~300배)를 이용해 처음에는 저농도로 예방 위주로 방제하다가 병 발생 후에는 고농도로 방제하면 탄저병·곰팡이병·진딧물·담배나방·온실가루이 등 범용적 병해충 방제가 가능하다.



- 경제성 분석 결과, 유기재배와 고추 적화 시 약제비용 1/3, 수확 비용 1/3을 줄일 수 있고 증수효과가 약 1.8배 있어 약 280만원 이상의 수익증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 앞으로 고추 산업의 주요 관건은 생산성·안전성·기능성 등을 높이고 경영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
- 농촌진흥청 채소과 남춘우 농업연구사는 “국내 고추 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안전성과 경영성을 고려한 고추 꽃 따주기 기술로 국내 고추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벼줄무늬잎마름병 조기 예찰로 방제까지 가능해요

- 논둑과 제방 깨끗이 관리하고 못자리에 전용 약제 처리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줄무늬잎마름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기 예찰을 당부했다.
- 최근 조기예찰시스템과 병에 강한 품종 개발 등 줄무늬잎마름병이 대발생하는 피해는 줄고 있지만, 일부 포장에서는 여전히 발생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벼줄무늬잎마름병 발병 필지율은 4.3%로 조사됐다.
- 병 발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줄무늬잎마름병은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므로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다음으로 매개충인 애멸구를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저항성 품종은 주남조생·진부·하이아미·신동진·새누리 등이 있다.
- 발생 상습 지역인 충남 서산과 태안·전북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애멸구 발생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애멸구는 월동처인 논둑과 제방을 제초작업 등으로 깨끗이 관리해 어른벌레 발생률을 낮추고, 벼 이앙 직전 전용약제를 못자리 처리해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또한, 보온 못자리의 비닐이나 부직포를 열 때 논둑에 있던 애멸구가 들어오지 못하게 못자리뿐만 아니라 주변 잡초에도 살충 작업을 한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벼줄무늬잎마름병의 조기 예찰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3종류의 벼 바이러스 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동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했다.
- 이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겨울을 난 애멸구의 보독충을 조사해 바이러스 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 초기 방제를 할 수 있다.
- 농가에서는 벼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황화증상 등 정상적이지 않은 벼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에 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이봉춘 박사는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병 저항성 벼 품종의 개발과 보급뿐만 아니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아열대성 바이러스병 매개충에 까지 발생 예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참깨, 파종 시기와 서로 간 거리를 지켜주세요

- 파종은 5월에 15~20cm가 알맞고 초기 배수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참깨 재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알맞은 파종 시기와 포기 간격을 소개했다.
- 참깨 재배 농가의 95%는 경지 규모가 0.3ha 이하의 소규모로 농가 간 수량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보다 안정적으로 참깨를 생산할 수 있는 표준 재배기술을 소개했다.
- 파종 시기는 5월 5~20일이 적당하며, 이랑에 2줄로 재배할 때 포기 간격(주간거리)을 15~20cm 정도로 구멍 한 곳당 참깨 종자를 4~5알씩 심으면 된다.
- 이랑을 만들 때 휴립 피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활용하면 이랑너비 70cm, 고랑너비 40cm로 만들 수 있고, 수확할 때 참깨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포기 간격을 10cm 정도로 좁게 하면 숙음 작업량이 늘고 줄기가 얇아져 쓰러지기 쉽다. 또 간격을 25cm 이상으로 하면 포기당 꼬투리 수는 늘지만 면적당 꼬투리수가 줄어 수확량이 9% 감소하고 쓰러짐이 많아져 수확 작업이 힘들어진다.
- 논에서 참깨를 재배할 때 토양 과습으로 인한 수량 감소를 예방하려면 생육 초기부터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습해를 입는 시기에 따라 수량 감소율도 달라진다. 어린 묘 시기에는 41, 꽃눈 형성기에는 24, 꽃피는 시기에는 14, 마지막 꽃 피는 시기에는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논·밭의 가장자리나 필요한 구역에 50cm 넓이에 30cm 깊이로 골을 파주면 좋다.
- 참깨 종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285)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종자를 준비할 때 베노밀·티람 수화제를 종자 1kg당 약제 4g씩 가루 문힘(분의처리)하면 각종 병을 예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강항원 과장은 “참깨의 파종 시기와 포기 간격을 지키고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참깨 수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토양 물리성 관리가 작물 생육·고품질 수확 좌우

- 농촌진흥청, 밭 토양 물리성 관리 방안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밭 토양의 물리성 기준을 설정하고, 물리성이 불량한 토양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 품질이 좋은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공급되는 양분과 수분을 뿌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물과 공기의 알맞은 분포가 중요하다.
- 그런데 최근 대형 농기계 사용과 함께 토양을 썩거나 깎는 인위적인 조성으로 흙이 다져지고 물 빠짐이 나빠져 뿌리가 잘 뻗지 못해 생육이 불량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수확할 때까지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뻗는 약 20~40cm 깊이의 흙이 너무 다져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밭 토양 물리성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



- 다짐 정도는 질땅이나 모래땅 등 토양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20~40cm 깊이에 점토가 많은 밭은 용적밀도 1.5 Mg m^{-3} 미만, 모래가 많은 밭은 1.6 Mg m^{-3} 미만이 되도록 한다.
- 또, 뿌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구덩이를 뚫을 때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깊이(지하수위)가 100cm보다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
- 용적밀도는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를 땅에 꽂아 지그시 눌러 힘이 더 들어가는 깊이에서 흙을 떠서 흙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면 된다.
- 검사는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에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 검사 결과, 물리성이 불량한 경우에는 토양 상태와 작물 생육 상태를 고려해 토양 환경을 개량해야 한다.
- 20~40cm 깊이에서 다져진 곳이 발견되면 3~4년 주기로 토양을 깊이 갈아 단단한 층을 부드럽게 해준다.
-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랑을 높게 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토양이 회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다음 작물을 심기 전에 암거배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작물 재배 중 이 같은 토양 개량이 어렵다면 물주는 양을 줄이거나 물주는 간격을 늘려 공기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조희래 농업연구사는 “작물 생육을 좌우하는 뿌리는 토양 내에 물과 공기가 얼마나 분포하는지와 관련이 깊다”라며, “작물 재배 중에는 토양을 뒤집거나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재배 전에 토양 상태를 파악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산 땅콩산업 활력 수량·기능성 높은 품종 개발이 한몫

- 땅콩 용도 다양화 위해 싹나물 재배기술도 개발... 실용화 성공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량과 기능성을 높은 땅콩 품종과 땅콩 싹나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국산땅콩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우리나라 땅콩시장은 1990년대 수입개방 이래 저가의 수입산이 들어오면서 자급률이 26%로 크게 낮아졌다.
-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국산땅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품종을 개발하고 용도를 다양화하는 연구를 추진했다.
- 그 결과, 현재까지 50여 땅콩 품종을 개발·보급했으며, 농가 수량을 1980년대 106kg에서 2014년 기준 272kg으로 2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 그 중에 2012년 개발한 '신팔광'은 수량이 10a당 540kg으로 기존 최고 수량 품종에 비해 28%가 많은데, 이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수량이 많아 농가소득도 늘었다.
-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기존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광' 땅콩보다 소득이 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3년 개발한 '케이올'은 올레산 함량이 82.9%로 땅콩 품종 중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올리브 오일보다도 4%p 더 높다.
- 또한, 볶은 뒤에도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아 품질과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품종 특성을 인정받아 2015년 '제주 우도 특산품 땅콩 명품화사업' 품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연구진은 품종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높이는 땅콩 싹나물 재배기술을 개발해 실용화에 성공했다.
- 땅콩에는 항암, 대사성 질환 개선, 노화 지연, 미백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땅콩이 싹나물로 자라면서 레스베라트롤이 1,00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 땅콩 싹나물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실용화한 기술로 총 4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 최근에는 땅콩 껍질질에 항산화, 항염증, 시신경 보호 등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식의약소재로 활용 하는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발작물개발과 배석복 박사는 “땅콩의 기능성을 활용하면 화장품, 식의약품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하므로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생리활성 검정 등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배추·무 정부비축 물량 확대 공급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주요 품목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 채소류를 제외한 품목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나, 채소류의 경우에는 1월 한파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가격 강세 경향
 - (채소류 10개 품목 평균) 521%↑, (과일·과채 7개) △10.5%, (축산 3개) 4.8%↑
- 당분간 강세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에 대해서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양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배추·무)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을 탄력 공급해 가격 조절
 - (양파·마늘) 농협, 한국농산물냉장협회 중심으로 협조체계 강화 및 정부 비축 물량 탄력 운용
 - (한우육) 비수기(7~8월) 물량을 4~5월로 앞당겨서 출하해 행락철 수요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농촌진흥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기관별로 수급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
 - (농촌진흥청) 마늘·양파 현장지원단 운영 등 생육 지도 강화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물량 출하조절, 도매시장 경매 상황 실시간 파악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에 500억 지원

- 축산계 학교 졸업자 등에 지원 확대해 후계인력 육성 -

- 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개방에 대응,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40%(143억원) 많은 500억원을 187농가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 사업 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 허가된 소·돼지·닭·오리·흑염소·사슴·꿀벌·말·토끼·메추리 사육농가다. 전업농(한우 1천 200㎡, 돼지 3천 200㎡ 미만) 139농가는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213억원을 지원하고, 전업규모를 초과한 48농가는 이차보전사업으로 287억원을 지원한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106, 낙농15, 양돈24, 양계20, 기타22 농가를 지원한다.
- 지원 조건은 전업농 이하의 경우 보조사업 보조20, 융자60, 자담20%이며 융자 금리는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 기업농은 융자 80, 자담 20%이며 융자 금리는 1%,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 농가에서는 지원 자금을 축사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와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경관 개선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축산 기반 조성사업 확대를 통해 축산업의 전업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도로변 등에 위치한 축사 이전을 촉진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유기농 실천 농업인에 70억원 1% 저리 융자

- 전남도, 유기농 선도 위해 59억 지원 확정...5월 추가 신청 받아 -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유기농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70억원을 금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친환경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친환경농산물 재배 여부, 친환경농업 취급 경력, 사업성, 신용도 등에 대한 시·군 현지 평가, 전남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건, 59억원의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 이번에 확정된 사업 대상자는 원료 구입과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 16건 49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자금 8건 10억원이다. 지원 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 아직 확정되지 않는 여유자금 11억원에 대해서도 5월까지 추가로 신청받아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과 법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은 한국의 유기 농업시대를 이끌기 위해 장기저리자금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및 새끼우렁이 공급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타 시·도 학교급식 유기농쌀 공급 확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며 “앞으로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지게 될 것이므로 저비용 고품질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품질경쟁력을 갖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해 도내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을 100%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유기농 생산을 돕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ha당 유기농 장려금을 벼는 120, 채소는 130, 과수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농 직불금은 국비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ha당 논 60, 밭 12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8. 해외 농업정보

◆ 사우디 식품시장 공략 키워드 : 웰빙과 안정성

- 천연재료·자연친화적 첨가제 사용 중시···FDA 비롯한 국제인증 획득 유리 -
-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식품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알로에 음료·쌀가공식품 등 원재료의 특성을 잘 살린 우리 웰빙식품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 현지 유통업계에 따르면 급격한 인구증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 시장은 더운 기후의 영향으로 농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더 큰 폭으로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수입식품시장 규모는 173억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현지 유통업체들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출산율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식품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업체들이 관련시장에 눈을 돌릴 것을 주문하며, 효과적으로 관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웰빙제품과 안전성, 높은 품질 등을 앞세울 것을 당부했다. 최근 현지인들의 식품 소비습관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품의 성분, 천연재료 사용 여부 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업체 닐슨이 최근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가 식품을 고를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천연재료 및 첨가물 사용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천연재료 활용도가 높은 우리 알로에 음료·쌀국수·쌀과자 등의 수출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제품 포장 전면에 원재료 함량 비율을 강조하거나 원재료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또 아미노산·질소·벤젠과 같은 첨가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화학첨가물 무첨가’, ‘천연색소 사용’ 등과 같은 특징을 포장 전면에 내세운 제품 일반제품과 비교해 판매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인공첨가물 대신 자연 친화적인 첨가물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FDA(미국 식품의약국) 등 신뢰도 높은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급상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증을 획득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꼽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일본서 제품 영양성분 표기 마케팅 인기

- 파프리카·토마토 등 수출 농식품 객관화된 자료 바탕 영양수치 표기 필요 -

- 일본에서 영양성분의 수치를 앞세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 대일 수출 농식품도 성분 분석 등 객관적인 사실 증명을 통한 전략적인 수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도쿄지사가 최근 발표한 현지 농정 이슈조사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이나 식감을 수치화하거나 객관화해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식품업체들이 늘고 있다.
- 일례로 현지 청과 유통업체인 베지테크는 이화학분석센터를 설치·취급하고 있는 채소류의 영양성분(아미노산·비타민 등)과 식감·당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이를 앞세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손질채소 제조업체인 델리카 후즈 역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막대그래프로 보기 쉽게 만들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제품의 경우, 성분분석 결과를 앞세워 제품 이름을 ‘베타카로틴이 많은 당근’ 등으로 출시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aT 도쿄지사는 후생노동성이 올해부터 수입식품 검역 시, 대장균 모니터링과 같은 세균검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대일 수출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제조 작업장 내 위생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경우, 전문분석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전문화된 수치자료로 만들어 바이어와의 상담 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를 그래프 등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포장 등에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돕고 활성산소 작용을 억제한다’는 식의 문구와 함께 활용한다면 소비자 구매도 적극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4. 18.(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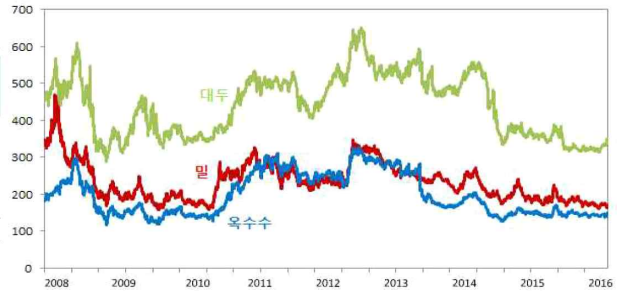
수출수요 증가 및 기상 우려 등으로 옥수수 선물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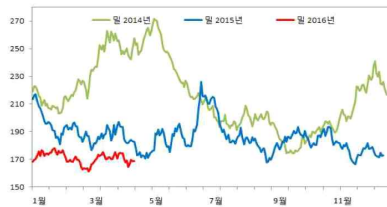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16.4.15)	전일대비	전월평균('16.3)	2015 평균
밀	168.87	-	170	186
옥수수	148.97	▲1.2%	143	148
대두	351.26	▲0.8%	327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5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US\$/ton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솟키버링세로 상승한 후 혼조세를 보였으며 전일과 같은 수준에서 마감하였음. 주요 밀 수출국의 경쟁 심화, 풍부한 밀 재고량 등 미국산 밀 가격 약세 요인이 존재함. 다음 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겨울밀과 봄밀에 필요한 수분을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옥수수 수출 수요 증가로 가격지지를 받아 상승 마감하였음. 올해 하반기 라니냐로 인해 미국 중서부에 덥고 건조한 기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악화로 인한 옥수수 단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격을 지지하였음. 또한 브라질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는 브라질 옥수수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 가격에 상승 압력을 더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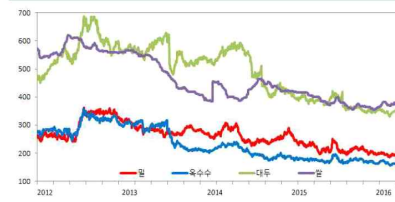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시장을 지원하는 펀드멘탈과 기술적 요인 등으로 상승 마감함. 대두와 옥수수의 풍부한 세계 공급량에도 불구하고 기타 펀드멘탈 등이 대두 선물가격을 지지하였음. 남미의 기상악화 우려로 인해 미국의 대두 수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격에 상승 압력을 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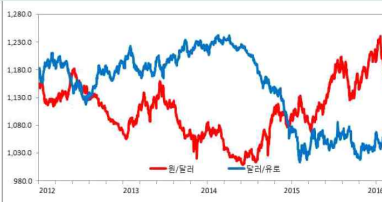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대두 수출가격은 남미 생산량 증가 전망 등으로 하락
-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생산동결 회의에 대한 회의감 확산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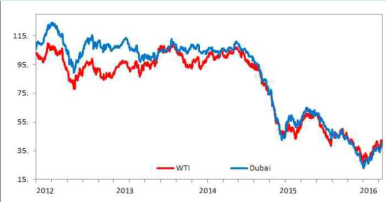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3	환율	원/달러	1,153.4 ▲0.8%
	옥수수	168		달러/유로	1.1277 -
	대두	364	국제유가	WTI	40.36 ▼2.7%
	쌀	382		Dubai	39.37 ▼0.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5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4.14(수출가격), '16.4.15(환율), '16.4.15(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sonmy@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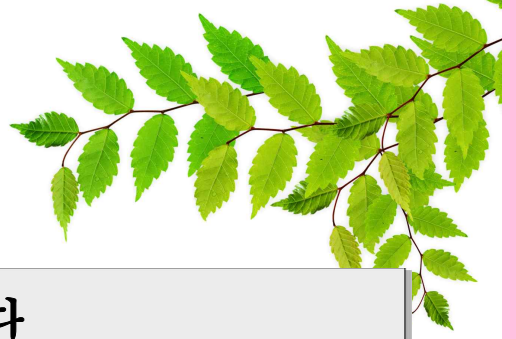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정보가 다양”한 전남농업정보지 구독 희망자 모집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다양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남농업정보지 구독자를 확대하기 위해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농업정보지는 주간 및 격월간으로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주간농업정보는 매주 화요일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월간 정보는 짝수 달 마지막 주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 전남농업정보지에는 기상전망, 병해충, 농축산물 가격정보, 수출입 동향, 청년창업, 정책동향, 해외 농업정보, 기술개발, 사업홍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전남농업정보지 구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께서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매너에서 「전남농업정보 소식지 받기」의 소식지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성별, 연령대, 영농경력, 지역(주소), 전자우편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연구사는 “농업인이 FTA와 같은 농업환경 변화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재배면적 및 출하시기 조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농업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농업 관측, 소비성향 등의 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광주전남 도심서 직거래 농부장터 열린다

- 16일부터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등 3곳서 매주 토요일 10~20% 저렴 -
- 전라남도는 16일부터 11월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과 시민광장 등 광주·전남 도시지역 3곳에서 매주 토요일 정기 ‘농부장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농부장터는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와 목포 하당 평화광장, 순천 조례동 호수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 이들 정기 ‘농부장터’는 계절별로 출하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전남 농·특산물을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광주·전남권 도시민은 시중보다 10~20% 저렴하게 구입하는 도농 상생의 장이 될 전망이다.
-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운영되는 광주전남 상생 농부장터는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운영된다. 또 목포 평화 광장 농부장터는 일로농협 로컬푸드와 합동으로 운영돼 이곳에선 다양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16일 개장일에는 입맛을 돋우는 봄나물·야채류·딸기·토마토 등 제철 신선 농산물과 김·미역·버섯류 등 건어물을 판매한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제철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준비했으니 매주 토요일 도시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직거래 농부장터 운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81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

